

# ‘금혼령’ 배우 조수민 “가상캐스팅 때부터 언급돼 놀랐죠”

MBC TV 종방극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히든카드로 활약해 박상우 PD님이 ‘화운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불러줘 감사할 따름

배우 조수민(24)은 MBC TV 종방극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에서 히든카드로 활약했다. 종방 3화를 앞두고 ‘화운’으로 합류, ‘소량’(박주원)과 ‘신원’(김우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원작 웹툰 팬으로서 가상 캐스팅 때부터 언급 돼 특별 출연하기까지의 미가 남다른 터다. ‘펜트하우스2’(2021) 종방 후 약 2년만의 안방극장 복귀지만, 어색하기 보다 “설렘이 컸다”며 “올해 첫 시작을 금혼령으로 끊어서 기쁘다”고 했다.

“원래부터 금혼령에 관심이 많았다. 이전에 웹툰을 봤는데, 드라마화 된다고 했을 때 가상 캐스팅으로 언급 돼 놀랐다. 화운은 부드럽고 선하지만 강단있는 점이 나와 비슷하다. 드라마에선 분량이 압축됐지만, 박상우 PD님이 ‘화운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불러줘 감사했다. 오랜만에 촬영장에 가서 부담을 느끼기 보다 내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입던 옷을 다시 입은 느낌이다.”

이 드라마는 왕 ‘이현’(김영대) 앞에 ‘죽은 세자빈으로 빙의할 수 있다’는 사기꾼 궁합쟁이 소량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JTBC ‘재벌집 막내아들’과 경쟁해 시청률은 3~4%(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낮았지만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조선시대 혼인금지’라는 설정도 신선했다. “나도 아역 때부터 활동해 연애를 자유롭게 한 편은 아니다. 성인이 돼도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다.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편”이라며 “신원(김우석)이 소량을 7년 동안 잊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결 같은 사람이 있구나’ 싶더라. 나도 신원처럼 순애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바꿨다. 김영대(27)와는 펜트하우스 이후 2년 만에 만나 반가웠을 터다. “오빠랑 겹치는 신이 많지 않아서 촬영 때 많이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오래만에 만나 재미있게 촬영했다”고 귀띔했다. “땀글에 ‘민설야(조수민)와 주석훈(김영대)이다’ ‘펜트하우스에서 괴롭히더니 여기서 만나네’ 등의 땀글이 많더라”며 웃었다.

사극은 ‘양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2020)에 이어 두 번째다. “양행어사에선 평민 역을 맡아 옷을 껴입을 수 있었다. 화운은 양반 집 구수라서 예쁜 한복을 많이 입었지만, 예뻐수록 추웠다”며 “화운이 입 가리개를 하고 나온 신이 있다. ‘코로나19 시국에 데뷔한 화운’이라는 반응도 재미있었다”고 했다. 퓨전 사극의 매력으로 “옛 전통과 현대 말투가 합쳐져 친근감이 더 생겼지 않느냐”면서 “코미디도 조금씩 들어가고, 일반 사극보다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고 질었다.

“화운이 자수를 잘 놓아서 으름으로 뽀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작품을 빼앗겨 다

른 사람 이름이 붙었을 때 고무마를 100개 먹은 듯 답답했다. 근데 화운은 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량이 중전으로 오르도록 도와줬다. 간택 시험 때는 화운이 자기 할 말을 다해 시원했다. 보삼 당할뻔 해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대비마마가 보고 꾸짖었다.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얼굴의 흠결이 아닌 마음의 흠결’이라며 ‘겉모습보다 사람의 마음을 봐달라’고 했다. 시청자들이 ‘사이다’라고 했는데, 나도 연기하면서 통쾌했다.”

아역 출신인 조수민은 2006년 드라마 ‘서울 1945’로 데뷔했다. 2009년 이후 10년간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진심이 닿다’(2019)로 연기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성인이 돼 가치관이 정립되면 ‘다시 활동하자’고 마음 먹었다”며 “중·고등학교를 온전히 다니고 싶었다. 학창 시절엔 인생에서 한 번 뿐이라서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진짜 친구들도 생겼고, 그 때 배운 게 연기에도 많이 도움됐다. 하나를 하면 파고 들고 채찍질 하는 성격이라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항상 목표는 연기였다”고 돌아봤다.

금혼령 출연 전 드라마 ‘언더더건’ 촬영을 마친 상태다. 극중 피아니스트를 꿈꾸다 중학교 시절 미국 LA로 유학을 떠난 ‘차세영’을 맡았다. “꾸미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서 교복을 입고 연기하는 데 부담감이 없다”면서 “교복을 안 입은 지 5년 정도 돼 다시 입으니 반갑더라. 뭘가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며 좋아라했다. 조만간 앨범도 발매할 계획이다. 펜트하우스에서 성악을 전공한 예고 학생으로 등장했고, 지난해 SBS TV 예능물 ‘티키타카’에서 ‘인어공주’ OST ‘파트



오브 유어 월드’를 불러 주목을 받았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며 “어렸을 때 가수 제의도 받았지만, 연기가 더 하고 싶었다. 팬들의 응원을 받아서 앨범을 내게 됐는데, 내 목소리의 장점을 살린 곡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전 작품에서 많이 당해 풋풋한 로맨스를 해보고 싶다. ‘호텔델루나’의 ‘장만월’(아이

유)처럼 귀여우면서 카리스마있는 역도 맡고 싶다. 나를 보고 ‘연기 잘하는 배우’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갑정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연기 잘한다’고 하면 어떤 칭찬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켜봐 좋으면 좋겠다. ‘호텔델루나’ 김혜수 선배님이다. 매 작품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받고 싶다.”

## 블랙핑크·던·제이홉, 美 ‘롤링스톤’ 선정 ‘스타일리시 뮤지션’



글로벌 그룹 ‘블랙핑크’, 래퍼 던(DAWN·김효중),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가장 스타일이 좋은 뮤지션들로 뽑혔다.

4월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 롤링스톤이 최근 발표한 ‘2023 가장 스타일리시한 뮤지션 25’(The 25 Most Stylish Musicians of 2023) 명단에 따르면, 블랙핑크·던·제이홉이 각각 6위·16위·21위를 차지했다.

롤링스톤은 블랙핑크에 대해 정규 2집 ‘본 핑크’의 선공개곡 ‘핑크 베놈’ 활동에서 스트리트웨어, 글래머, 로큰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봤다. 또 패션계가 1990년대와 2000년대로 회귀하는 가운데 블랙핑크는 한 걸음 앞서고 있다면서 ‘본 핑크’ 타이틀곡 ‘셋다운’ 영상에서는 크롭 저고리, 가죽 재킷, 데님 멜빵바지 등 트렌드를 수용하는 동시에 지수가 지방시 스킨 워싱 스커트 세트

를 입는 방식처럼 클래식한 아이디어를 현대화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블랙핑크 만큼 고급 패션과 잘 융합되는 밴드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롤링스톤은 던에 대해 한국 래퍼들은 최고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가 이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담한 꽃무늬와 색깔 조합, 야생적이고 유행에 뒤떨어진 액세서리 조합을 높게 평가했다. 던이 싱글 ‘스투피드 쿨(Stupid Cool)’ 영상에서는 밝은 파스텔 ERL 퍼쳐(puffer), 아디다스 트랙 팬츠, 자크루스 핑크 멜빵바지, 베르사체 스카프 등의 조화로운 앙금하며 그만이 소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계선 같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롤링스톤은 제이홉이 지난해 7월 첫 솔로 음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를 발매하고 미국 시카고 롤라팔루자(Lollapalooza)에서 처음으로 혼자 무대에 올랐을 때 패션을 복기했다. 검정 루이비통 의상, 드롭숄더, 드레스 입은 티셔츠, 바이커 스타일의 장갑, 오버사이즈 로고 엠보싱 데님이 팬들의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특히 제이홉의 검정 앙상블은 그를 더 강인해 보이게 만들었고, 그것은 그가 솔로 영역을

### 각각 6위·16위·21위 차지

차지하면서 겪고 있는 ‘미적 변화’의 일부라고 평가했다. 상징성이 짙었던 ‘잭 인 더 박스’의 타이틀곡 ‘방향’의 뮤직비디오에서 디자이너 바조우의 맞춤형 흰색 점프슈트를 입고 비틀거리며 걷는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롤링스톤은 제이홉은 경력의 한 장을 쓰고 있고, 패션은 그것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1위는 미국의 얼터너티브 밴드 ‘디 인터넷’의 기타리스트이자 ‘패션 아이 콘’으로 통하는 스티브 레이시가 차지했다. 2위는 미국 래퍼 도자 캣, 3위는 스페인 출신의 글로벌 팝스타 로살리아다.

롤링스톤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스타일과 음악이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힙합의 전설이자 패션 트렌드 세터인 슬릭 리크의 말을 인용해 “스타일은 그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금을 그것을 갖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비문세가 정규 7집 ‘르네상스’에서 70~80년대의 음악과 외모를 복원한 것부터 던이 싱글 ‘스투피드 쿨’에서 클래식 힙합 실루엣을 선보일 것이 예”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 가수 거미, 곡절(曲節)에 곡절(曲折) 넘치네



악곡의 마디를 가리키는 곡절(曲節), 복잡한 사정이나 까닭을 뜻하는 곡절(曲折).

4월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진 가수 거미(42·박지연)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비 오리진(Be Origin)’엔 이처럼 곡절이 넘쳤다. 히트곡과 팬들의 사연(事緣)이 가득했다.

거미는 지난 2003년 2월1일 정규 1집 ‘라이크 뎀(Like Them)’으로 데뷔했다. 이 음반의 더블 타이틀곡이었던 ‘그대 돌아오면’ 친구라 도 될 걸 그랬어’로 출발한 이날 공연은 초중반까지 연대기적 구성이었다.

정규 2집 ‘잇츠 디퍼런트’(2004) 타이틀곡 ‘기억상실’, 정규 3집 ‘포 더 블룸(for the bloom)’(2005) 타이틀곡 ‘아니’와 ‘어른아이’, 정규 4집 ‘컴포트(Comfort)’(2008) 타이틀곡 ‘미안해요’ 등을 순서대로 들려줬다. 현재까지 낸 마지막 정규 음반인 정규 5집 ‘스트로크’(2017)의 ‘아이 아이 요(I I YO)’는 앙코르 곡에 포함돼 있었다.

“OST 여왕”으로 통하는 거미답게 그녀는 드라마 OST 히트곡 퍼레이드도 펼쳤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OST ‘눈꽃’,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2009) OST ‘그대라서’, ‘대물’(2010) OST ‘죽어도 사랑해’, ‘태양의 후예’(2016) OST ‘유 아 마이 에브리씽(You are my everything)’, ‘호텔 델루나’(2019) OST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등이다.

무엇보다 거미의 대표곡들은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는 R&B 발라드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노래들이었다. 멜로디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코드 전개가 화려하며 화성적으로 풍만한 곡들에 대한 향수가 일었다.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들었던 노래들이 기억과 감정을 스쳐 지나가 마음이 죄다 열리는

듯했다. 20년간 거미의 노래들을 들어온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거미를 최근 알았거나 그녀를 ‘조정석 아내’로 인식하고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실제 겪지 못한 것에 대한 경험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게 노래의 힘이니가.

무엇보다 노래에 다른 사람들의 곡절이 흘러들어와 이야기 화음이 더 풍성해졌다. 이날 공연장에 모인 이들이 실제 다 같이 체험했다. 거미는 콘서트마다 팬들의 사연을 같이 공유하는 라디오 형식의 코너도 꼭 진행하는데 이날 사연들은 더 특별했다.

학창시절부터 거미랑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날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싶었다는 제주 출신 여성, 거미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속한 가수 솔지와 대학 실용음악과 동기라는 서른다섯살의 세 아이 엄마 등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특히 세 아이를 둔 엄마는 자신의 인생 곡이라는 ‘어른아이’를 거미와 함께 듀엣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가수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또 다른 꿈을 키워며 열심히 사는 그녀를 보고 객석 일부에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 셋 낳은 뒤 날개 웃을 다시 입고 나왔다”며 자신의 상황을 전래동화 ‘신녀와 나뭇꾼’에 비유하는 너스레도 떨었다.

이처럼 노래는 청자의 사연을 품고 더 아름답게 된다. 결국 이날 거미가 들려준 히트곡들은 혼자 부른 노래들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며 부른 노래들이라 의미가 더 컸다. 거미가 ‘이별 발라드’의 장인이지만 그건 이렇게 또 다른 만남들을 낳았다.

이날 공연 중간에 ‘인간극장’ 형식을 빌린 영상도 눈여겨볼 만했다. 지난 2010년 ‘왕거미’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가수로도 데뷔했던 거미의 어머니 장숙정 씨, 거미의 매니저 등이 가수 거미 또는 인간 거미에 대한 인상을 솔직히 전했다. 거미는 이 영상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제 음악도 변하겠지만 그걸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다.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콘서트는 노래 자체의 힘을 보여줬다. 밴드와 20명가량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사운드의 밀도를 높였고, 선명도가 높은 LED 스크린은 무대 연출을 도왔다.

## 공민지·장수원,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시상자 참석

그룹 잭스키스 멤버 장수원과 2NE1 공민지가 ‘30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2’ 시상식에 참여한다.

한터뮤직어워즈의 주최사인 한터글로벌은 4일 ‘한터뮤직어워즈’ 시상자 5차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아이돌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두 아티스트 장수원과 공민지의 참여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수원은 1997년 잭스키스 정규 1집 ‘하원 별곡’으로 데뷔해 ‘커플’ ‘사나이 가는 길’ 등의

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현재 연기,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2009년 2NE1으로 데뷔한 공민지는 ‘아이 돈 트 케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등의 곡으로 사랑 받았다. 현재 활발한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무대에서 펼쳐진 2NE1 완전체 무대에도 올라 화제를 모았다.

한터뮤직어워즈는 오는 10일과 1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국



내 방송은 SBS M, 해의 중 일부 지역은 엠넷 재팬과 엠넷 Smart+ 볼 수 있다. 또 아이돌플러스를 통해 국내 모바일과 일본을 제외한 해외 전지역 독점 생중계된다.